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2월 22일(주일) 제1275호



지난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교역자들이 특수를 하고 있다.

“기쁘다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오늘(22일)은 성탄주일 ... 칸타타, 발표회 등 기념행사
12월 25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늘(22일)은 성탄주일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다채롭고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위 십과이어, 양재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뮤지컬찬양팀이 칸타타를 한다. 수원 1~4부, 남양주 1~2부, 평택 1~2부, 인천 1~3부, 강동 1~3부, 양지 1~2부 예배에서도 칸타타를 한다. 부천 저녁 7시 성탄축하의 밤, 인천 3부 예배 부사별 발표회(위십댄스, 성경암송, 합창 등), 강동 오후 4시 30분 차세대 '키즈벤처' 발표회를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오후 7시)에서는 특별 전도집회 '뜻밖의 선물'을 개최한다.

12월 25일(수)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부천 오전 9시, 11시, 수원, 대전 오전 9시, 11시 30분, 남양주 오전

11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30분, 평택, 강동 오전 11시, 양지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빙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가수 김영우(스윗소로우)가 진행하고, 배일환, 이화첼리 양상별,

크리스마스 콘서트, 송구영신예배·신년예배 일정

캠퍼스	12월 25일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서빙고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양재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수원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대전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남양주	오전 11시 30분	오후 11시	-
인천	오전 10시 30분	오후 9시, 11시	오전 10시 30분
평택	오전 11시	오후 11시	-
강동	오전 11시	오후 11시	-
양지	오전 10시	오후 11시	-

소프라노 김영미, 가수 이무송, 노사연, 교역자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배우 정태우가 진행하고, SDG 양상별, 남성창 CRUX, 소프라노 신델라, 교역자팀이 특수를 한다.

한편 2019-2020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 일정이 나왔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온누리

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9시,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신년예배는 2020년 1월 1일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예배시간은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수원,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30분이다.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신년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표 참조).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월 5일, 12일 2020년 선교헌금 작성

신규 및 증액 후원, 재능기부 후원 선택

2020년 선교헌금 작정이 1월 5일(주일)과 12일(주일)에 실시된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교헌금 작성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신규로 선교헌금을 작성하거나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보기도 등 재능기부 후원도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을 실시하면서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관련 기사 7면).

문의: 02-3215-3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8기' 참가자 모집

서류마감 1차 12월 25일, 2차 2020년 1월 8일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류마감은 1차 12월 25일(수), 2차 2020년 1월 8일(수)이다. 면접은 1월 11일(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역은 3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본, 중동 등지에서 하게 된다.

FA 18기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으로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5세 이하(85년생), 세례

교인만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온누리교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신청양식은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후원: 하나는행 573-91009-62805(FA무브먼트)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누가복음 2:8-20(12월 24일 본문)

본문 주제:탄생(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연약의 성취의 기쁨을 누린다)

영상제목: (사랑하심)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

내용: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예언자를 보내기만 하지 않고 직접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대신 살아 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어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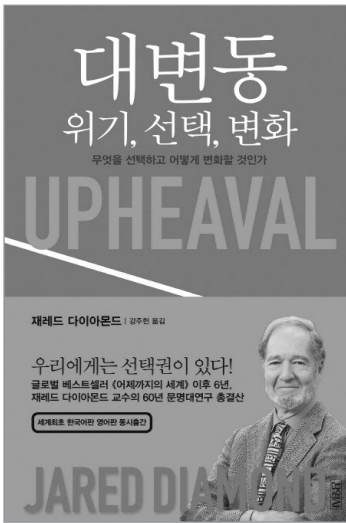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

“대변동이나 격변은 언제 오는가?”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 김영사
| 24,000원

“대변동이나 격변은 언제 오는가?”

이 질문에 항상 따라 오는 답은 ‘위기의 상황에서 온다’이다. 위기는 영어로 ‘crisis’이다. 그리스어 명사 ‘krisis’와 동사 ‘krino’에서 파생했다. 이 단어들은 ‘분리하다’, ‘결정하다’, ‘구분하다’, ‘전환점’을 뜻한다. 따라서 위기는 중대한 고비 혹은 결정적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문에서 위(危)는 위험을, 기(機)는 ‘중대한 시점, 임계

점, 기회’를 뜻한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심리치료라는 전통적인 방법은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어린 시절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효과는 속도가 무척 느려서 위기 상황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위기치료(crisis therapy)는 현재의 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춰 행해진다. 갑작스런 큰 화재나 가족의 자살 같은 상황에서 끝없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울타리 세우기’ 기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안도감을 느낀다. 다음단계에서 심리치료사는 환자가 울타리 안쪽의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움을 준다. 환자는 그렇게 ‘선택의 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6주 동안의 단기적 위기치료는 매우 유용하다. 위기치료 심리상담사들이 개인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12가지 요인을 찾아냈다. 1. 위기 상태의 인정, 2.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의 수용, 3. 울타리 세우기(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조건), 4. 다른 사람과 지원 단체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 5. 문제해결 방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 6. 자아 강도, 7. 정직한 자기 평가, 8. 과거에 경

험한 위기, 9. 인내, 10. 유연한 성격, 11. 개인의 핵심 가치, 12. 개인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선택의 자유)이다.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에 대입해 보면, 요인 1, 2, 3, 4, 5, 7, 8은 개인이나 국가 똑같이 위기 요인으로 적용된다. 9는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12는 국가와 개인의 유사성이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다르고, 지리적 위치와 국방 및 군사력과 정치력을 이유로 선택의 자유에서 제약을 받는다. 나머지 요인 6. 국가 정체성, 10.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 11. 국가의 핵심가치의 개인적 요인은 국가와 관련된 요인의 은유적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저자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역할, 위기해결에 국가 지도자의 역할, 집단 의사 결정 방법, 국가의 위기는 평화적 타협과 폭력적 혁명 중에서 어느 쪽을 통해 선택적 변화로 이어지는가?”, “여러 형태의 국가적 변화가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시에 시도되는가 아니면 시기별로 따로따로 시행되는가?” 등의 의문들을 추가하였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과 자멸을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 외부적 요인으로 갑작스레 격변을 맞은 두 국가(핀란드와 일본), 내부적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두 국가(칠레와 인도네시아), 점진적으로 확대된 위기에 시달린 두

국가(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고통스럽지만 자기평가와 대응이 근현대의 격동기를 어떻게 극복 가능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 세계가 직면한 대변동을 해설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 편에 몇 줄 나오는 것이 전부가 한국의 위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는 나의 숙제로 남겨졌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고, 정직한 자기평가와 과거에 경험한 자신감 때문에 현재의 핀란드와 미국으로 발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는 지정학적 위치가 위기의 큰 변수이기도 한 것을 보며 작금의 한국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지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개인을 올려 드리고, 자기를 정확히 통찰함으로 분별력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현실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김정순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나요?”

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할지라도 자녀 한 명을 잃으면 세상 모두를 잃은 것 같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밤낮없이 잃어버린 자녀(영혼)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찾아다니십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100-1=?’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답은 99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의 답은 0이 된다.

어느 양 떼 주인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아직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었지만 주인은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다.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닌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눅 15:4).

넓은 들을 돌고 돌아 드디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주인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 성경은 이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그렇다면 한 영혼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실까?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 1:27).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 자녀가 죄를 짓고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마음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다.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을 모두 챙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 나중에는 먹을 것마저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다가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한결숨에 달려 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눅 15:20).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며 발에 신을 신겨 준다. 자기 분깃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최고의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한다.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말을 잘 듣는 귀한 첫

째 아들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곁을 성실하게 지킨 아들이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잊고 지낼 부모는 없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옛말이 있다. 엄지든 중지든 약지든 모두 내 손가락이다. 열 자녀를 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같이 사랑하신다. 교회에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큰아들 같은 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없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찾아다니신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을 의지하면서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미래에 대한 교과서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고, 이끌고 계시며, 어떻게 마무리 하실 지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역사에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나 자신도 모르며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만약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 알려주었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대충하다가 주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느냐보다 맡겨진 소명에 충실한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사의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코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살전 5:16~24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능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의 코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23절).

어떤 모임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을 지켜 주는 것이 그 모임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어떤 기관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규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규율을 잘 지켜야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삶의 규율’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규율의 공통점은 상황이 변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의 코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 ‘내면의 거룩’

첫 번째 코드는 내면의 거룩입니다. 우리 내면에 항상 변치 않고 있어야 할 거룩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16~18절).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나의 내면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갖는 기쁨입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적어도 며칠 동안 예식을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랑이 약속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이유는 기쁨을 배가시키려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신랑이 나타났는데 신부에게 전혀 기쁨이 없거나 우울한 표정, 어두운 표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가 기다렸던 신랑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 신랑도 그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쁨의 만남이어야 하고, 그 만남의 기쁨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4:13).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기쁨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해석해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앞당겨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내면의 거룩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을 받는 기적 체험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일본 나가노 현에 사는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되고 언어능력을 상실한 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이웃에 살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았습니다’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내면에 거룩, 기쁨, 기도, 감사가 가득차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거룩과 분별의 거룩

두 번째 코드는 ‘능력의 거룩’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하지 마십시오”(19-20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지식, 경험, 고집, 불순종 등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켄달(R.T. Kendall)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둘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켄달 목사님은 두 가지 비둘기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공원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습관이 신앙을 키우고 삶을 바꾼다 4. 나눔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셨다!

나눔은 기적을 낳는다 ... 그 열매는 넘치는 축복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삶의 방식 '나눔'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고,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그 마지막은 '나눔' 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 이들이 훔친 것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등 1만원 남짓 식료품이었다. 사연인즉 아버지가 몸이 아파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배고픔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눈물 흘리며 잘못을 비는 부자(父子)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마트 주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경찰도 훈방조치 했다. 밥을 못 먹었다는 부자의 말에 경찰이 그들 부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고, 마트에서 이 상황을 맡음이 지켜본 한 시민은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는 사라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사연이 보도된 직후 전국에서 이들 부자를 돕고 싶다는 온정이 쇄도했다.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온 할머니부터 쌀, 사과, 라면 등 식료품, 성금, 일자리 주선까지 각 계각층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에게 국밥을 사주며 눈물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처럼 나눔은 희망과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습관처럼 나눔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눔이 곧 예수님의 습관이자 삶 자체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누러 오셨고, 우리에게도 나눔을 명령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응답 나눔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성경은 없는 자들에게 나눔을 행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 15:10~11).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 41:1).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 28:27).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 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나눔의 은혜와 축복, 기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나눔은 기적을 낳는다는 메시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병이어 기적이다.

벧새다 빈들에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군중에)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때 안드레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 온 아이였다. 그 아이는 자신의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가 바쳤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었다. 한 소년의 나눔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눅

6:38)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나눔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들도 등장한다.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그 주인공이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이지만,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음에 달려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간파하셨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눅 19:5).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

철저히 회개하고, 나눔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고백한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나눔이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나눔은 온 유럽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포문을 열었다. 루디아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옷감 장사를 하던 평범한 이방여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마게도냐 빌립보에 왔다. 마침 빌립보에 오게 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거듭난 루디아는 곧바로 나눔을 행했다. 자신의 지갑과 집을 열어 바울과 실라를 섬겼고(행 16:15),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았다(행 16:40). 바로 그곳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교회다. 빌립보교회는 루디아의 나눔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나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런 빌립보교회를 사도 바울이 특히 사랑했다(빌 1:8, 4:1).

예수님의 삶은 나눔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눔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셨다. 그 결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배우 김혜자 권사는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10여 년 동안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의 빈민촌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그녀가 자신의 수필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습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눠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 주셨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사랑 나눔이 사람을 살린다!

나눔은 소망 주고, 생명 살리는 ‘기적의 힘’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눔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속성이 곧 나눔이기 때문이다. 나눔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성찬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마 26:26~28).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

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나눔을 통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눠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이 무너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나눔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와 일터 등 모든 영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눔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주셨다. 추수할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포도 또한 전부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송이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다(레 19:9~10).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보아스는 롯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룻 2:16),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나눔은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눔 신앙은 오병이어 사건(마 14:14~21)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먹으려던 오병이어를 담은 짐승도시락을 공동체를 위하여 내놓았을 때, 그것이 나누어져 오전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눔 정신이 가득한 이 사건은 오래 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이상하다 동전 한 닢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하네.”

나눔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하다. 나눔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나눔 신앙 증거는 예루살렘 교회(행 2:44~45)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령의 권고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했고, 그것은 교회 내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나눔은 공동

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나눔 정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임무를 다해야 한다.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할 때 가끔 냉장고 문에 외국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본다. 그 중 어떤 아이는 한 달 생활비를 후원받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학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어린이들에게 후원되는 금액은 대부분 매월 2만원 안팎의 소액이다. 그러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은 그 돈으로 생존하기도 하고, 공부를 할 정도로 큰 액수이다. 나눔이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심어준다.

‘사회적 기업’과 ‘재능기부’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진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

것이다. 베트남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한 성도는 사업을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 먼저 욕심을 내려놓았다. 분점을 늘려가면서 점주들에게 지분을 나눠주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점주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경험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눔 결과 경영 실적도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해서 고객들의 건강에도 기여했다. 성경적인 나눔 정신이 기업 경영에 반영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수익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추천자만 확실하면 어떤 조건도 없이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돈의 위험성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돈은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짓는 길로

재활용 매장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 매장은 시간을 기부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역지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에 ‘나눔장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눔장터는 시간을 기부한 성도(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은 기부 받은 옷가지들을 정리한 다음 팔아서 얻은 수익금을 매년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은 농촌 교회의 위탁을 받아 매주 주일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입금을 송금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을 기부한 성도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사회선교본부’를 두고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성탄 시즌에 진행되는 ‘엔젤트리’는 나눔 정신이 드러나는 좋은 행사이다. 천여 명 참석했던 행사가 5년째 되는 올해에는 약 4,5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대학청년부가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사랑애티움’ 행사도 나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 행사에 일반 성도들은 비전헌금으로 참여하고, 대학청년들은 몸으로 참여해서 성경적인 나눔 정신을 살리고 있다. 매월 둘째 주일마다 실행하고 있는 비전헌금도 나눔 정신을 담고 있는 좋은 예이다.

나눔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돈만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돈 없음보다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나눔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 나눔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서울역과 남대문 쪽방촌, 동빙고 독거노인 등과 같이 외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분들이 많다. 이들은 시간을 기부하는 훌륭한 천사들이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만나는 이들은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누군가 찾아와 대화를 한다는 것과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얻는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담긴 나눔이다. 최근 상영되고 있는 영화 ‘Last Christmas’의 주인공 대사가 도전해 준다.

“하루를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의 나눔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시 흘러가는 한겨울은 더 이상 춥지만 한 계절이 아닐 것이다.

“사랑이 빠진 나눔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 나눔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주주(社主)를 위한 수익창출이 기업의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직원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기업으로 변하거나 지금은 창출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요즘 웬만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사회봉사본부나 부서를 운영하면서 돈이나 물건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크리스천 기업들 중에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조용히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감사한 일이다. 투자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성도는 금년 연말에 1억 원어치 생리대를 헌납했다. 처음에는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반년 치 생리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상자들은 전부 취약계층 여성들이었다. 많은 여성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눠준 성도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한

인도한다는 깨달음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딤후 6:9~10)을 실감한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나눔 후에도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눔 후에는 어떤 확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 또한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용어는 ‘재능기부’다. 재능기부란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아무 대가없이 자선사업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배움의 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야학(夜學)이 많았다.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따라 무료로 강의했다. 이것이 재능기부의 원조였다. 지금은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을 상대로 의료봉사를 하고, 미용사들은 농어촌이나 양로원 혹은 요양원 등을 찾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미술인들은 마을단장사업에 참여해서 벽화그리기에 재능을 기부하고 있고, 음악인들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시간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국이나 호주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각종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성경적 질문 만들기가 너무 재밌어요!”

공감력, 창의력, 상상력 길러주는 ‘가스펠 프로젝트’

13분,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그만큼 부모자녀관계가 가깝지 않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매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놀면서 성경적 질문을 만들고,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가한 가정이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놀면서 성경적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으며, 어떤 행복을 노래하고 있을까?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면서 성경적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그 값진 시간은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아심차게 준비한 ‘가스펠 프로젝트’(이하 부천 가프)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두란노서원에서 번역한 미국의 성경공부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따왔다. 성경공부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만으로도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천 가프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추가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소그룹 나눔’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순 목사(부천 차세대)가 부천 가프에 유대인 가정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 교육’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인과 청소년,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문화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면서 성경적 질문을 만들어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감력, 창의력, 상상력을 자극하고 증가시키는 탁월한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순 목사의 설명처럼 매주 주일 진행되는 부천 가프에서는 주제에 맞춰 성경적 질문 만들어보기, 시 쓰기, 그림 그리기 등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정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천 가프는 5학기(2년 반) 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지난 1일(주일) 종강했다. 이번 학기에는 18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다섯 가지 열매

부천 가프를 진행하면서 다섯 가지 열매가 맺혔다. 첫째, 아이들이 성경적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됐다. 둘째,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었다. 셋째,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이 생각나게 됐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됐다. 다섯째,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

아이들은 부천 가프 시간을 정말 좋아한다. 오하준 학생(초4)은 부천 가프가 왜 즐겁고 좋

은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빠랑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정말 재미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니 성경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인물이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꼭 성경 이야기로만 질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질문을 만들어 내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한다. 한번은 사탕, 과자, 양갱,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것을 먹으며 질문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초콜릿은 왜 갈색인가요?”, “사탕을 먹으면 왜 이가 아파요?”, “젤리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부담 없이 질문하게 만들어줬더니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날은 색다른 숙제를 내주기도 했다. 성경본문을 주고 질문을 만들어오라고 했다. 아이들은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숙제를 해왔다. 10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온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부천 가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 가프에서 ‘요나서 뒷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와 아이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하브루타 소그룹 나눔을 좋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기 위해 공감력, 창의력, 상상력을 총 동원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운유 학생(초1)은 무시무시한 요나서 뒷이야기를 만들었다.

“저는 요나가 지옥에 갔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던 요나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도 도망갔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못 참고 지옥에 보내셨을 거 같아요.”

김가영 학생(초3)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진 전도자가 되는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나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모두 전



부천 차세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됐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만든 실감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들도 꼭 빠져든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반성하고, 배우는 게 부천 가프의 또 다른 매력이다. 장하은 학생의 어머니 남희정 성도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

“하은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은이가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죄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이 부모의 상상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머리를 쥐어짜며 곤란할 때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곽선영 성도는 부모를 성경인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에 요나가 되어 아이들로부터 질문폭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저에게 어쩌다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게 됐는지, 물고기 뱃속에서는 무엇을 먹었는지, 그 맛은 어땠는지를 물더라고요. 아이들이 쉽 없이 쏟아내는 질문들에 힘이 들긴 했지만 자유롭게 상상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니 저도 즐겁고 좋더라고요.”

일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엉뚱한 질문과 대화들을 나누면서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지세나 성도는 아이들의 질문에 꼭 정답을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 틀에 박힌 제 생각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천 가프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일상에서는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더욱 친밀해졌고요.”

남희정 성도는 다음 부천 가프에는 남편과 꼭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가정 분위기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좋은 프로그램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기수에는 꼭 남편과 함께 참여할 거예요.”

오하준 학생의 아버지인 부천 가프 팀장 오성민 성도는 차세대를 키우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 가스펠 프로젝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차세대 예배에 자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질문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온누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선교지 - 난민

지구촌에 난민이 2천만 명이나 있다!

평균 20년씩 떠돌고,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도 못 받아

2020년 선교헌금 작성(1월 5일, 1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교헌금 작성을 앞두고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선교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난민이다. 지구촌에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섬겨야 할 난민이 무려 2천만 명이나 있다. 난민들은 평균 20년 동안 떠돌고,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들의 눈물을 바로 우리가 닦아줘야만 한다. 그것이 온누리교회 선교의 또 하나의 사명이자 비전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난민이 2천만 명이나 존재한다고 한다.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등을 합치면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혹은 난민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난민들의 국적도 다양하다. 베네수엘라, 미얀마,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말리, 파키스탄,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라크, 예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족이나 종교문제로 발생하는 전쟁(내전)이다.

난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사명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난민들을 만날 수 있다.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진 콩고왕자 조나단의 가족도 난민이다. 조나단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난민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인물이다.

난민들이 겪는 고난은 실로 엄청나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하루아침에 고국을 떠난 난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국에서 자리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년이다. 난민들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온누리교회는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한다.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 있는 난민센터, 어린이센터, 난민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최전방 난민지역도 하고 있다. 자립지원, 목회지원, 어린이사역, 교회개척, 일대일제자 양육 등으로 난민 2천여 명을 섬기고 있다. NGO 더밋진세상은 남수단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1만여 명을 돕고 있다. 학교를 세워주고, 급식과 식수를 제공하는 등 난민들이 건강하게 생존하고, 미래를 꿈꾸며,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단체들과 협력해서 남수단 난민 2만여 명을 추가해서 섬기는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팀이 있다. 동작공동체는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 공동체에서도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다.

지역	사역특징	사역내역
중동A국 I지역	난민교회 지원	2년간 총 1,200명 대상 사역 예배/심방/전도, 제자훈련, 온누리 콘텐츠(일대일 외) 보급, 디지털 생계자립
중동A국 G지역	난민교회 지원	3개월간 총 120명 대상 사역 교회개척, 예배/심방
중동E국 A지역	난민센터	2년간 총 738명 대상 사역 예배/복음사역, 교육, 직업훈련, 방문
중동B국 BS지역	어린이센터	2년간 총 590명 대상 사역 어린이사역, ODA사업, 현지인/국제팀 등과 다국적 연합사역
중동B국 B지역	난민센터	사역 세팅 중 전도, 교회개척, 현지교회 협력, 제자양육 등 예정



중동 B국의 사설 난민촌.

이 땅에는 인종과 국경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인종과 국경이 없다. 2000선교 본부는 앞으로 중동 B국에서 융합선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B지역은 시리아 국경에 인접

한 지역으로 난민 7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난민캠프가 조성되어 있다. B지역 선교팀은 현재 땅 밟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칼럼



전영수 장로
(2000선교, SWIM)

온누리교회 중동 지역 난민선교는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시리아 주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난민선교의 특징은 난민 전도와 구호품 제공 등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난민이 난민을 전도하게 하고, 우리는 난민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생계자립을 유도하는 등의 창의적 난민 선교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난민이 난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중동지역 A국에 있는 텐트촌 밖의 난민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QT),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 융합선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 결과 난민교회 성도들이 심방 및 다양한 현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세례를 활발하게 베풀었다. 대부분이 개종자로 구성된 난민교회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른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난민들에게 컴퓨터를 여러 대 보급하고, 디지털 광고사진 편집기술을 가르치며, 일감을 공급하고 있다. 난민들이 제작한 제품이 한국 고객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생계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창의적 난민선교 모델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중동지역 여러 나라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들을 성경교사로 양성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구도자들을 원적으로 양육하는

창의적 난민선교를 시작한다!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즘 아랍권에서는 그들의 신앙에 회의를 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양육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부족한 일꾼을 난민들로 채우고자 한다. 난민 성경교사가 아랍권 구도자들을 양육하거나 전도하는 것이다. 도움 받은 난민들이 도움을 주는 난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일에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이 쓰임 받을 것이다.

둘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난민교회 목회자들의 큐티설교를 유튜브(YouTube)로 방송하는 것이다. 난민교회 목회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아랍어 <생명의 삶> QT본문으로 설교하면 책보다 구전문화에 더 익숙한 아랍권 여러 나라에 큐티가 효과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셋째, 온누리교회 융합선교사역을 여러 난민교회에 보급하는 것이다.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 그들이 원하는

여러 사역들을 아웃리치 형태로 보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민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

넷째,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난민들에게 고급사진보정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더 많은 작업을 하게하고, 그로인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사진 보정작업을 다른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난민들에게 생계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난민선교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선교헌금 봉헌으로 난민선교에 참여하고, 공동체는 난민들을 품고 책임선교를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은 광고사진 작업을 난민들에게 위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난민선교를 이뤄가기를 바란다. 문의: 070-4940-185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12월 14일 토요일

하나님의 언약: 이신칭의

창세기 15:1~6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나는 네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이 품고 있던 의문을 던집니다.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까’하는 의문입니다. 아브람은 하인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 안에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의’라는 진리가 등장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부족하고 탈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

고 계속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로 설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브람의 믿음이 15장에 이르러야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람이 믿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손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쌍방 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을 죽이고, 둘로 찢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 바꿀 수 있는 약속도 있고, 변할 수 있는 약

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바꿀 수 없는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어겨질 때 죽음을 요구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지고 신실하게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된다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의 정욕, 자랑, 타락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이념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난한 땅에서 진멸당한 아모리 족속 같이됩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6일 월요일

하나님의 명령: 온 마음으로

창세기 17:1~8

이재훈 목사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성직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난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람이 불순종하고, 사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불행은 지금까지 중동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래는 이스마엘이 잘 자라니까 하나님

의 뜻이라고 착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믿음으로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지금까지 언약의 약속을 폭격처럼 주셨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고, 자손이 머물 땅을 주고, 번성한 자손과 땅을 통하여 나라를 강대하게 하고, 나라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증거로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바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주셨을까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신앙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행함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자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추적하셔서 이 명령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7일 화요일

하나님의 계시: 네가 웃었다

창세기 18:9~15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탈선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 받은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속으로 웃었습니다(창 17:17).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년 이맘때쯤 이루어지리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장막 뒤에 숨은 사라에게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천사들

의 대화를 듣고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12절). 사라의 웃음 또한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들, 겉으로는 경배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고 웃는 이 모습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은 웃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웃음을 지적하십니다(13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웃음을 걷어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14절). 이 질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잉태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8일 수요일

하나님의 심판: 벗들의 대화

창세기 18:23~33

이재훈 목사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니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의

인의 숫자를 깎으며 하나님께 흥정합니다. 계속해서 흥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틀림없이 그 한 명을 위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아

브라함의 간구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표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의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롬 5:18).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세상이 범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왔지만,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 구원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 12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추적: 옛 본성의 잔재

창세기 20:1~8

이재훈 목사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의 잔재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전능하다고 여기는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갇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전능자처럼 살아가는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양한 옛 본성의 잔재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옛 본성의 잔재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죄를 씻

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까지 추적하셨습니다. 장애물은 열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골방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장애물입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칭하시고 중보기도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위해 태가 열리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생

명을 잉태하도록 중보기도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 본성의 잔재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반복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잔재를 드러내기까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자기중심적, 세상의 욕망,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상처로부터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이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새사람이 되지 않았습니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옛 본성의 잔재를 온전케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뤄주실 것입니다.

◆ 12월 20일 금요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웃게 하시다

창세기 21:1~8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곧바로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우연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25년이 흐르는 동안 인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불신앙이 전부 드러

났습니 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를 통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태어났습니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낚시꾼처럼, 고양이를 잡는 쥐처럼,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 무리처럼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사라가 잉태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 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즈학’이라는 입을 짝 벌리고 웃는 의성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반응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사라는 인생을 비웃음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에게 입은 상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따듯하게 맞이해 주지 않는 불행한 인

생의 상처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사라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의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웃었을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 하나님을 떠난 웃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의 웃음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를 지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능자의 그늘아래 머무는 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구나.”

내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증명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옛사람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합하며, 이삭의 웃음을 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 고난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다.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조성수 장로’

조성수 장로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의 사업 방식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한민국 어딜 가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유독 강조하는 곳이 식품업계라고 한다. 연고 없이는 납품조차 정말 어렵다고 한다. 조 장로는 그 치열한 식품업계에서 연고 하나 없이 17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조 장로의 회사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그의 영업방식이 비결이다. 조 장로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한다. 조 장로는 사업을 시작하고 단 하루도 기도를 쉬 적이 없다. 밥은 굶더라도 아

침마다 2시간씩 꼭 기도한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시시콜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래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시니까 보고 드리고 질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 장로는 거래처에서 답답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융통성 정말 없는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조 장로가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이다.

한번은 조성수 장로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에서 술영업을 제안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오던 거래의 양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장로는 그때도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경쟁사의 물품을 90%로 늘리고, 조 장로 회사의 물품을 10%로 줄이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그럼에도 조 장로

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거래처 직원이 조 장로를 불렀고 “제발 술영업 한 번만 하세요”라고 부탁했을 정도였다. 조 장로는 거래처 직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술영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분명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수 장로의 선한 고집은 계속 이어졌다. 거래하던 모든 물품을 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술영업은 절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고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거래중단 통보를 받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전화너

머로 “사장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성수 장로 회사의 물품을 빼고 거래를 하려던 경쟁사 물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그 일로 조 장로 회사의 물품이 좋은 제품임을 증명 받게 되었고, 더 많은 물량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조 장로가 17년 동안 사업하면서 체험한 기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제가 경험한 기적들은 세상과 타협했다면 절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풍성한 식탁, 가장 좋은 장소이자 도구

입맛 돋우는 식사와 가정예배의 궁합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정예배 장소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 놓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보통 2시간 이상 나눔을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힘은 가정예배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들의 가정예배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 찬송을 하고, 성찬을 한다. 또한 식사 중에 토라(유대교의 경전, 모세 5경) 공

부를 한다. 이때 신앙과 가정문제, 비즈니스, 농사법 등 실제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눔을 주고받는다. 이때의 나눔이 자녀들의 인생지침이 된다.

크리스천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듣고 질문하는 자세다. 유대인 아이들은 토라를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스스로 없이 부모와 의견을 나누고,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게 이끈다.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는 하루 세 번 함께 식사

를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다.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에서는 식사와 가정예배는 실과 바늘이다. 특징은 설교는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간단한 질문만 한다.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가정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잘 차려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기도를 한다.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성경 구절을 읽고 자녀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다. 다함께 찬송(시편)을 부르고, 아버지의 기도도 예배를 마무리 한다.

38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혁승

교수(서울신대 구약학 명예교수)도 가정예배 도구로 ‘풍성한 식탁’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족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정예배가 기다려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한 주에 한 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풍성한 나눔을 가져보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해보자. 세상 어디에서도 돈 주고 경험할 수 없는 탁월한 자녀교육이 될 것이다. 예배방법이나 구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정하면 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예고된 예수님의 탄생

본문 : 마태복음 2:9~11(우리말 성경)

찬양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메시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박사들은 우주의 운행을 감지했는데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유대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계십니까?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첫째, 왕이 나셨습니다. 그 별이 얼마나 특별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알아보았을

까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이 일에 대해 확인합니다. 또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섭니다. 이때 박사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뭘 뜻이 기뻐합니다”(10절).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박사들은 큰 별을 보았고 왕이 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 별이 멈춘 그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 뭘 뜻이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뭘 뜻이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보물함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보물함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말

씀하십니다. 몰약은 죽은 이에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 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보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경의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12월 22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한 대표(하남주식회사, 사진 왼쪽)가 영종도 온누리교회를 세워달라며 재산 100억 원을 기증했다..

영종도 온누리교회 기증 약정식

하남주식회사 전영한 대표 100억 원 기증

지난 17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회회에서 ‘영종도 온누리교회 기증 약정식’이 열렸다. 전영한 대표(하남주식회사)가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09-3번지에 2028㎡ 규모의 교회를 건축해달라며 100억 원(종교부지 등)을 기증했다.

영종도 온누리교회 기증 약정식은 찬양 및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전영한 대표(하남주식회사) 인사말, 약정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영한 대표와 가족, 온누리교회 교역자, 선교 재단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를 대표해서 귀한 헌신과 기증을 해주신 전영한 대표님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종도 온누리교회를 만들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전영한 대표는 “이 돈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해 주신 돈이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마땅하다”면서 “건강하고 믿을 만한 온누리 교회에 기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CGNTV 세라핌합창단이 오는 28일(토)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 ‘Sound of Music’을 개최한다. CGNTV 세라핌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함께하는 찬양, 세계의 명곡, 함께하는 즐거움, 핸드벨 찬양, 세라핌 OB와 함께 등을 선보인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오디션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카페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5958-5583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518	김윤형	여호수아	1138538	이지현	SNS	1138559	엄효식	J4U	1138578	정웅철	허브
1138519	방미영	인천 서누리	1138539	박혜진	SNS	1138560	김향란	대전중과배	1138579	이현경	남양주B
1138521	정호성	서대문	1138540	이금희	SNS	1138561	강수정	S브릿지	1138580	이아영	허브
1138522	김은희	평택	1138541	임요한	SNS	1138562	이정미	강남A	1138581	진대만	인천 서누리
1138523	전종선	평택	1138542	정진용	부천 화평	1138563	박솔이	여호수아	1138582	유종열	성동광진
1138524	설동훈	평택	1138544	최현정	S브릿지	1138564	송수정	여호수아	1138583	김승원	성동광진
1138525	서소희	S브릿지	1138545	박시온	마포	1138565	배지은	강남B	1138584	김태수	부천 소망
1138526	정현주	서초A	1138546	강미란	서대문	1138566	이은미	여호수아	1138585	이아영	부천 믿음
1138527	김유성	서초A	1138547	정환승	마포	1138567	유예랑	여호수아	1138586	김마숙	부천 사랑
1138528	차유진	서빙고	1138548	고은희	강남B	1138568	권희선	여호수아	1138587	박선영	대전 남누리
1138529	홍성혁	도곡	1138549	박도준	서초D	1138569	김대도	여호수아	1138588	남상희	마포
1138530	박설희	양지 동누리	1138550	임동수	수원 서누리	1138570	김주영	여호수아	1138589	이해랑	한강
1138531	정정교	양지 동누리	1138551	권향숙	동대문중앙	1138571	이혜진	마포	1138598	김수련	하나
1138532	김호변	SNS	1138552	노윤미	S브릿지	1138572	이지연	Gil	1138599	이해옥	양천
1138533	고다현	SNS	1138553	이재성	평택	1138573	강복원	송파A	1138600	신은혜	무공동체
1138534	유영은	SNS	1138554	박준성	J4U	1138574	이동민	허브	1138601	이진애	관악금천
1138535	박재영	SNS	1138555	정사윤	평택	1138575	염유진	허브	1138602	강경화	부천 믿음
1138536	김광현	SNS	1138556	서선오	평택	1138576	손한솔	허브			
1138537	지다인	SNS	1138558	이성근	인천 서누리	1138577	전소연	허브			

남양주M센터 건립을 도와주세요!

공사대금 2천만 원, 약기, 냉난방기 등 필요

온누리M미션과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남양주M센터 건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 진접읍 광릉 일대에 남양주M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내부공사 잔금(2천만 원), 냉난방기 대금(2천만 원), 음향기기 대금(2천만 원), 샷시 및 바닥공사 대금(1천만 원)이 부족하다. 약기(키보드, 기타, 드럼), 치과장비, 주방기구, 가전, 수납장, 의자, 테이블 등도 필요하다.

남양주M센터가 완공되면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이주민을 위한 예배 12개를 개척할 예정이다.

양옥진 선교사는 “남양주M센터에 12개 언어 예배가 세워지고, 이주민들을 고국으로 역파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10-3937-3927

후원: 하나 486-910017-61804

남양주온누리M센터



‘찾아가는 사랑, 쪽방촌 가족과 함께’

서울역희망공동체 ‘2019 감사의 밤’ 행사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을 섬기고 있는 서울역희망공동체가 지난 14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찾아가는 사랑, 쪽방촌 가족과 함께’를 주제로 ‘2019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역희망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봉사자 70여 명이 한데 모여 올 한해 열매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했다.

서울역희망공동체 감사의 밤 행사

는 정운오 장로 대표기도, 이기훈 목사 말씀, 축하공연, 축사 및 간증,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훈 목사는 “쪽방촌 주민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기억해주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섬기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우간다 부드리마을 급수시설 준공

NGO 더멋진세상, 12개 지소에 수도 공급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인 부드리마을 급수시설을 준공했다. 지난 13일(금) 부드리마을에서 급수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부드리마을 급수시설은 마을 언덕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낙차를 이용해서 12개 지소에 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주민 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간다 부드리마을에서 급수시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건축,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남수단 난민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선교지에 노트북을 보내주세요”

인도네시아 M지역 S신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할 노트북 후원이 절실하다. S신학교에서는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 1노트북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S신학교는 10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인구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M지역에 세워졌다. 4년 전 정부인가를 받아 매년 20명 정도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문의: 010 - 7236 - 2872

■ 일본 나가노 수해 복구팀 간증



/ 조현아 자매(일본어예배부)

또 한번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생후 6개월 때 백혈병에 걸렸다. 긴 투병기간을 거쳐 7살 때 완치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를 오랜 시간 나가지 않던 부모님이 다시 교회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찾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다. 초등학교 졸업을 끝으로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무엇 하나 뛰어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 ‘지옥 같은 세상 백혈병이 재발해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선물 받은 책에서 매일 형식적으로 접하던 시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3).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면 분명 살아갈 이유가 있을 거야’ 마음을 다잡

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번 새 생명을 얻었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받았다.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나처럼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나가노 수해복구팀에 지원한 뒤 그때의 일을 돌이켜 보았다. 수해복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했다. 나가노에서 보낸 5일은 어떤 말로도 그 소중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다. 일본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재해지역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은 우리의 작업이 끝나는 날까지도 도처에 진흙이 잔뜩 쌓여있었고, 수리되지 못한 부서진 집들이 쓸쓸히 서 있었다. 그러나 막막해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도 그곳을 생각하며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 땅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 캄보디아 아웃리치 간증



/ 신선이 성도(서초B공동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주의빛찬양사역팀 및 챔버팀이 함께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찬양사역팀과 챔버팀이 함께 아웃리치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시기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너무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웃리치를 떠나 있는 동안 손해 볼 일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믿음 수준을 보면서 괴로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을 회개기도를 통해 담대함으로 바꿔주셨다.

드디어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왕궁 땅 밟기였다. 불교와 힌두교가 뒤엉켜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어수선하고 마음도 힘들어졌다. 왜 거기를 갔는지 의문스러웠지만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깨우쳐주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내 눈에 비친 것은 문화라기보다는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을 억지로 보고 온 느낌이었다. 다른 문화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자세에서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런 모습들이 힘들게 느껴졌

는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의 최대의 감동은 쓰레기 매립장에 세워진 그린베텔교회에 갔을 때다. 기가 막힌 현장을 보고 나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보고 바라며 살았는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쓰레기 매립장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쓰레기보다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린베텔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의 신앙이 단지 옆 사람을 덜 미워하게 해달라는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 초라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일꾼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베텔교회를 비롯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의 감동과 울림이 다음 아웃리치 때까지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21기 5분 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박순심 성도(강서공동체)

최고의 행복 누리는 기쁨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물하고, 식사대접을 하면서 축복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도대상자와 함께 영접기도를 한 적은 없었다.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잘 전하지 못하는 교사였다.

수료 간증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른다. 전도학교 8주차를 지나며 학교 학생 2명에게 도표를 그려가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명동과 안산M센터에 가서 최고의 행복을 전하는 경험도 했다. 이 모두가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어공부를 하게 하시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고등학교 중국어 교사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의 생각과 다른 길이어서 지금까지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교사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

다. 5분 전도학교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일들에게 ‘담대하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채워졌다. 정말 놀라운 변화다.

내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를 명예퇴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다. 중국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할 때 공항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프랑스 영화배우 알랭 들롱처럼 잘 생기고 눈이 반짝이는 한 중국인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그분이 선교사의 짐을 들어주는 집안이 되어주었다.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분이 중국 고위 법조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국에 갈 때 그와 2번 정도 더 만날 기회를 허락하셨다. 몇 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은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다. 언젠가 그 중국인에게 평안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한다.

■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김정주 형제(두란노아버지학교)

실천하는 아빠
고백하는 남편

친구에게 두란노아버지학교 참석을 권유받고 내키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반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됐다. 매주 수업을 듣고 조원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참 느리게 흘러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색하기만 하던 안아주기가 많이 익숙해졌다. 조원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쉬워졌다.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내 안에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좋은 아빠와 남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들로 정리하게 됐다. 나눔의 시간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 놓은 적이 없다.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원가죽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학교를 통해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았다.

5주 동안 아버지학교에 참석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다. 항상 어

색하고, 어렵기만 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벽으로 생각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다. 내가 다가갈수록 한층 부드럽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미리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다.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이미 내게 보여주고 있던 사람들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내게 더 많은 용기를 주고, 나를 변화로 이끌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는 좋은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시작하며 자기소개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다짐을 떠올려 본다. 머릿속으로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를 ‘피전(pigeon)’ 이라고 하는데, 텃새가 강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서로 먹으려고 하고, 여러 마리와 짝을 짓고, 지저분해도 잘 적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는 좋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와 다른 종류의 비둘기가 있는데 ‘도브(dove)’입니다. 도브 중에서 ‘터틀 도브’라는 비둘기가 있는데 오직 한 마리와 짝을 맺고, 매우 평화롭고, 먹이를 아무리 던져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매우 평화롭고,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떠나고, 매우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온유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터틀 도브는 주변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하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어떤 원한이나 두려움이나 앙심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 마음이 분노, 원한, 두려움, 의심, 미움, 질투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 고집, 경험, 지식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민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예민하고, 섬세하신 능력을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필요 합니다. 나의 능력, 경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능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코드는 분별의 거룩입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21~22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선과 악을 분별함

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악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헬라이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금과 은을 제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진위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은이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금과 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와”라고 하는데 은이 먼저 등장합니다. 은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은 금보다 제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100% 순수한 은을 제련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제련이 힘들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을 완전히 제련할 때 작은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도 아주 작은 찌꺼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흠이 없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은이 잘 제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은을 녹인 물이 거울처럼 100% 투명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은을 제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련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울처럼 나타날 때 비로소 제련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분석을 통해 하나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큰 산업재해나 사망자가 나오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면에는 29번의 같은 원인의 경상이 있었고, 그 29명의 이면에는 300명의 잠재적인 부상자들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사고 이면에는 사소해 보이는 경미한 사고들이 29건 혹은 300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9:300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사고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수백 건의 사소해 보이는

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섬세하게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함으로 우리 영혼을 계속 제련해가지 못했을 때 결국 큰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악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분별의 거룩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 삶의 중요한 코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요일 3:2-3).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은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10대 시절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망가진 몸이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그를 다시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구가 된 이 몸 어딘가에는 앞으로 내가 변화될 모습을 담은 씨앗이 숨어있습니다. 근위축증으로 쓸모없어진 다리를 찬란하게 부활한 몸에 있을 다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 마비 상태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될 나를 얼마나 더 멋진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도 거울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 보는 내 모습은 틀림 없이 나의 것입니다. 훨씬 더 밝고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능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코드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의 코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류모세 목사
(살롬이스라엘 담당,
〈열린디아스포라〉 시리즈
저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인구의 3% 남짓한 유대인들이다. 미국 내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미국이 불과 300년 짧은 역사를 뒤로 하고 급세기 ‘슈퍼파워’로 우뚝 서게 된 과정은 유럽을 정복 없이 방황하던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1654년부터 시작된 네 차례 이민파동을 거치면서 미국 역사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첫 번째 이민파동(1654~1825년)에서는 1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주했다. 그들은 소규모 상인으로 미국 역사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하

지는 못했다. 두 번째 이민파동은 1825~1880년까지 이어졌는데 유대인 25만 명이 이주했다. 그들은 1789년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 계속된 유럽의 ‘혁명-반혁명’의 참상을 피하려는 7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미국사회에 정착했다. ‘위대한 서부개척시대’로 불리던 이 시기 유대인들은 부를 확보하기 위해 매진했다. 유대인의 특징인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상실했다. 세 번째 이민파동이 벌어진 1880~1920년에는 주로 러시아계 유대인 200만 명이 이주하면서 미국 내 유대인 역사가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때부터 유대적 지성이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주로 뉴욕 맨해튼 밀집지역에 정착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맨해튼 빈민가 공립학교에서 우등상을 휩쓸고,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동부 명문대학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1920년대 유대인들은 슬럼가에서 탈출했고, 1940년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을 추월하게 된다. 1940년대 뉴욕 전체 의사, 법률가, 치과의사 6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을 정도다.

네 번째 이민파동은 1933년 이후 히틀러의 등장으로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 30만 명이 이주하면서 일어났다. 미국의회의 이민규제를 완화시켜 나치 치하의 히틀러를 피하려는 유대인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바로 이 난민 속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 학자, 작가들이 있었다. 이것이 유럽 지성의 퇴보와 미국 지성의 도약을 초래한 결정적인 이민파동이였다. 1901~1939년까지 미국은 14명, 독일은 3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1943~1955년까지 미국은 29명, 독일은 5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1948년 국가 탄생 이후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거친 현대 이스라엘은 미국을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맹방’으로 부르고 있다. 몇 차례 중동전쟁과 아랍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한 유엔총회에서 여론이 이스라엘에 부정적일 때에도 미국의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와 외교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지극히 친유대적 성향은 미국의 초기 개척자들인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구약 성경의 정신적 계승자로 여겼고,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한 유대인들을 순례의 동반자로 반겼다. 청교도들은 미국으로의 탈출을 ‘출애굽’에 비유했고, 초기 정착지 매사추세츠만의 식민지를 ‘신예루살렘’으로 여겼다. 하버드 대학이 설립될 때 히브리어는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한때는 영어와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그들은 무척이나 친구약적, 친유대적 성향을 보였다.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으로 부상했다가 유대인을 추방하고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미국은 유대인과의 상생과 조화, 그로 인한 ‘윈-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열린디아스포라 스타디움〉
-이스라엘 2020년 7월 25일~7월 31일
-터키, 그리스, 산토리니 2020년 7월 31일~8월 8일
문의: 010-4902-1022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9년 12월 22일(주일) | 제1275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철희 목사(010-2937-8799)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열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7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2000선교 선교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모집 기간: 1월 7일~28일(화~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건너편 신동아쇼핑센터 3층 시급: 8,600원 자격: 온누리교회등록교인, 컴퓨터기반능력, 전화응대 친절히 하실 수 있는 분 지원: 이력서 이메일 접수 (onnuri2000m@gmail.com), 모집: 12월 27일까지 문의: 박지현 간사(02-3215-3372)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단 모집 과정국: 태완다, 우간다, 네팔 분야: 공공행정, 보건, 교육 기간: 2020년 3월~2021년 3월 문의: 이가일 PM(02-2271-2246), gail@abetterworld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 참고
--	---	---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여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브릿지33+ 밴드팀원 모집 모집: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문의: 이수준(010-6398-6022) 브릿지33+ 성가대 성가사 모집 문의: 변성우(010-5055-4031)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1, 8, 15, 22, 25, 29: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티엘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랜터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기쁜 성탄, 따뜻한 연말
CGNTV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하세요

“성탄
 특집”



🎄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 '동방현주 편'**

찬양 '사명'의 주인공, 동방현주의
 은혜로운 찬양과 삶의 고백

12월 22일 주일 오후 6시 20분



🎄 **나침반 바이블**

이정규 목사, 주영훈, 박효준, 김원규,
 안수지와 함께하는 유쾌한 성경퀴즈

12월 25일, 26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8시

“특집
 영화”



🎬 **벤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20세기 최고의 명작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 **폴란드로 간 아이들**

폴란드로 비밀리에 보내진 1,500명
 한국전쟁 고아들의 숨겨진 이야기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 **교회의 씨앗 인도네시아 바탁족**

56년간 인도네시아 바탁족을 섬긴
 독일인 선교사 노멘슨의 삶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10시



❄️ **맨인블랙**

16년간 흑인 빈민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섬겨온 이태후 목사 이야기

12월 2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